

移行過程에 있어서, 異質性を 부여하는 建築的裝置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vice for Giving Distinction

裴 正 仁*

Bae, Jeong 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rchitectural device for two places to be perceived as having distinct characteristics from each other. A residence of Yi Dynasty is selected as the object appropriate for this purpose and analyzed according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presented on two demensions: one is that of the concrete form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abstract meaning generated by the form.

It is meaningless to employ the form of the architecture of the past in today's architecture. The language of the architecture of the past must be reinterpreted into that of today. This means understanding and expressing the meaning of the architecture of the past, using the form and materials available today.

Without limiting its scope to figuring out "the architectural device for giving distinction" on the formal demension, this study tries to clarify the meaning generated by the form, on which its significance can be said to lie.

I. 序

1. 研究의 目的과 對象

本研究는, 目標場所와 出發場所를, 性格이 서로 다른 場所로서 認識시키기 위하여, 移行空間¹⁾에

1) 移行空間은 머물기 위한 場所가 아니다. 머물 場所를 향해가는 過程의 空間이다. N.Schulz의 'path'와 비슷하나, 同一하지는 않다. N.Schulz의 'path'는, 目標場所로의 명확한 方向性を 그 기본 속성으로 하는, 본질적으로 2차원적, 線的인 개념이다. 그러나, 移行空間은 3차원적 空間의 개념이다. 方向性は 강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은폐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方向性的의 굴절에 의해 과생되는 공간적 효과를 존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정희원, 안동대 가정학과 전임강사

設置하는 建築的裝置에 관한 研究이며, 이 建築的裝置를 '異質性附與 建築的裝置'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裝置는 다양한 타입의 건축에 有效하게 使用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宗教建築에서는 俗과 구별되는 聖의 場所로서 認識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住居에서는, 이 裝置를 통과,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거내부를 주거 외부의 場所, 즉 사회와는 性格이 다른 場所로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지친 家族員의 심리적, 물질적 再生産을 위한 휴식장소'라고 하는 住居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데에 有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裝置의 研究對象으로서 朝鮮時代의 中上流住居를 택했다. 朝鮮時代의 中上流層은, 男女有別등의 儒敎思想에 의해, 안마당, 안채를 외부의 세계와는 異質의 場所로서 규정하고 격리해왔기 때문에, 大門밖의 도로를 出發場所로 설정하고 안마당을 目標場所로 설정하여, 그 사이의 移行空間을 分析할 경우, 異質性附與 建築的裝置를 發見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分析資料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²⁾. 첫째, 重要民俗資料로 지정된 住居일것, 이는 자료의 수집이 편리하고 또한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移行過程이 긴 住居일것. 移行過程이 길수록, 異質性附與 建築的裝置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안마당의 圍繞度가 높은 住居일것. 圍繞度가 높은 편이, 안마당이 하나의 '場所'로써 기능하기 쉽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에서 分析한 住居는 4채로, 연구자료로서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가, 조선시대주거의 특성규명이 아니라, 장소간의 이질성 부여 건축적 장치에 관한 연구이므로, 조선시대주거 全般으로 일반화시킬 의도는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資料의 量의 많고 적음은 본 연구의 論據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研究의 결과 발견한 건축적장치를 朝鮮時代의 形態 그대로 現代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과거의 建築言語를 現代의 建築言語로 번역해야만 한다. 과거의 形態가 가지고 있는 意味를 파악하고, 現代의 材料, 形態를 사용해서 그 意味를 表現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異質性附與 建築的裝置를 '形態'의 次元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形態가 생성하는 '意味'의 차원으로까지 分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具體的인 目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異質性附與 建築的裝置를, 朝鮮時代住宅의 移行空間에서 찾아내어, 形態및 意味의 차원으로 分析한다.

2. 研究의 方法

일반적으로, 建築形態分析은 '存在形態'와 '知覺形態'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對象을 空間的, 時間的으로 固定된 것으로서 파악하고, 그것들간의 物理的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後者는 물체의 존재양태에 의해 생성되는 현상을 관찰자와의 關數로서 보는 것이다.³⁾ 存在形態論의 形態分析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客觀的인 개념작용을 重視하는데에 반하여, 知覺形態論은 보는 사람의 체험으로서의 지각작용을 문제로 한다. 知覺的意味는 建築形態가 空間 속을 보는 사람의 운동과 관련지어져서 分析될 경우,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본연구는 移行空間에 있어서 관찰자에게 전해지는 知覺的意味를 문제로 하고 있으므로, 建築形態를 空間 속을 보는 사람의 운동에 관련지어 分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문의 바깥에서 안마당까지의 移行空間을, 진입해가는 순서에 따라 視野에 들어오는 空間및 物體의 形態와 그 形態가 生成해내는 意味를 파악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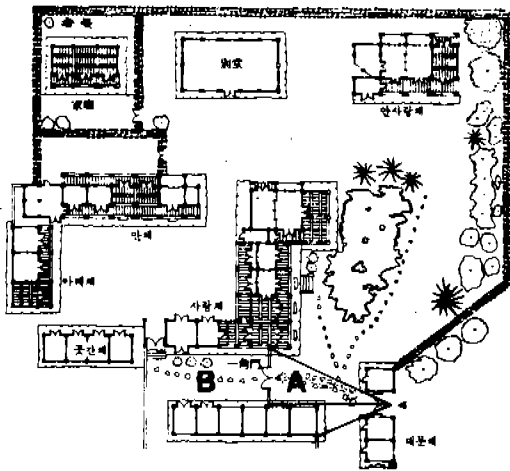
3) 金光玄, 「建築形態の重層的展開についての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1983, p6~8.

II. 異質性附與建築的裝置의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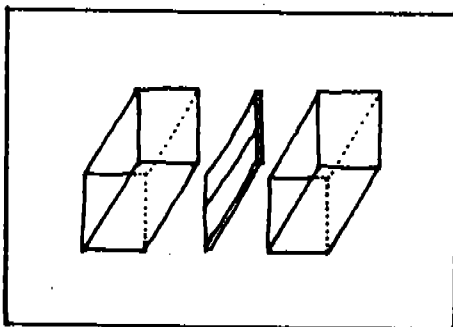
1. 咸陽 鄭柄鎬氏 住居

경상북도 함양에 있다. 1450년에 태어나, 成宗朝에 활약하고, 1493년에 타계한 鄭汝昌先生의 生家이다. 他界후 약, 100年 뒤에 重建했다.

안마당의 사면을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 곳간채가 둘러싸고 있다.(그림 1). 집안에 들어서려면, 우선 솥을대문을 거쳐야 한다. 솥을대문의 문짝은, 좌우의 문간방 측벽과 지붕에 의해 형성된 空間의 한가운데에 있다. 따라서, 문짝을 경계로 하여, 凹型의 空間이 形成되어 있다.(그림 2)



(그림1) 咸陽 鄭柄鎬氏 住居 平面圖



(그림2) 솥을대문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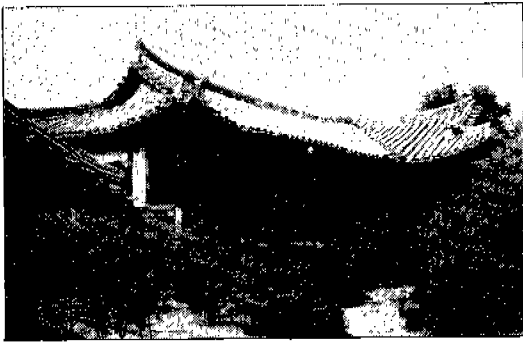
이 空間은 집에 속한 것도, 도로에 속한 것도 아니다. 완전한 집밖도 아니며, 동시에 완전한 집안도 아니다. 집안이면서 집밖이며, 집밖이면서 집안인 애매한 공간이다. 이 曖昧性이야말로 모든 門이 숙명적으로 지니고 있는 폐쇄와 개방이라고 하는 兩極性의 괴리를, 점진적 移行에 의해 완화·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要素이다. 닫혀진 門의 앞에서도 開放의 예감을, 열려진 門의 앞에서도 閉鎖의 여운을 느끼게 되는 것에 의해, 진입자는 폐쇄에서 개방으로, 집의 외부와는 다른 내부로 移行中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문이 열리면, 住居의 內部가 나타난다. 지붕과 벽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대문간에서 밝은 집안을 보게되기 때문에 턴넬과 같은 효과가 있어 집안의 모습이 진입자가 지금까지 있던 집밖과는 다른, 異質的인 세계인것처럼 보인다/(사진 1)



(사진1) 咸陽 鄭柄鎬氏 住居 솥을대문을 통해 보이는 집안.

이때, 대문채의 벽에 의해 視野는 제한된다. 행랑채의 측벽이 시야의 半을 점한다. 나머지 半의 視野 속에 사랑채의 측벽과 일각문이 보인다. 따라서 진입자는 일각문을 향한 좁고 긴 공간을 예감하게 된다.(그림1의 A부분 및 사진1에서 보이는 집안.) 그러나, 대문간을 지나서, 사선으로 놓여진 디딤돌을 따라 몸을 돌린 순간, 사랑채 앞의 넓은 마당이 보인다.(사진2) 예감한 것과는 정반대의 공간을 경험하는 意外性에 의해, 진입자는 자신이 異質의인 장소로 移行中에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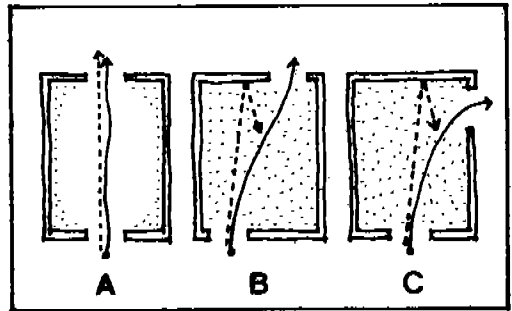


(사진2)咸陽 鄭柄鎬氏 住居 사랑마당.

디딤돌의 유도에 의해 一角門을 향해가서, 一角門을 통과하게 된다. 一角門은 實際性보다 象徵性이 뛰어난 문이다. 즉, 그 규모의 왜소, 형태의 간략함에 의해, 침입자를 막는 실제적 역할이 축소되고, 그때문에 오히려 서로 다른 장소간의 分節點으로서의 상징적 역할이 보다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一角門을 통과하면, 앞은 벽이고 좌우는 행랑채와 사랑채에 둘러싸인 행랑마당에 들어서게 된다.(그림1의 B)이 공간에 들어설 때, 진입자의 시선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一角門과 中門이 同一軸線上에 배치되어있지 않는 것때문에 굴절되는 視線 및 動線은 행랑마당의 공간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동일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보면, 보다 명백하게 된다. 두개의 門의 軸

이 일직선으로 일치하는 때에는, 吸引力에 의해 통과행위의 心理的 속도감이 빨라진다. 그결과, 그곳은 독립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스쳐지나가는 통과동선, 즉 '선'으로써 인식되기 쉽다. 이와는 반대로, 진행축이 굴절된 경우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해진다.(그림3 참조) 空間性이 강조되는 것에 의해 이 행랑마당은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는 單位空間으로써 인식된다. 따라서, 진입자는 移行過程中 또 하나의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다른 공간을 많이 경험할 수록, 이행과정은 길어지며, 目票場所가 出發場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써 느껴지기 쉽다.



→ : 시선

→ : 동선

A : 두개의 門의 軸이 동일축선상에 놓인 경우

B,C : 두개의 門의 軸이 굴절되어 있는 경우

(그림3)門의 위치에 따라 변화되는 공간감 개념도

행랑마당의 디딤돌이 끝나는 곳의 오른쪽에 계단이 있고 그 위에 中門이 있다. 中門을 통과하기 전에 계단을 오르게 된다. 上昇 혹은 下落은 場所의 變換을 상징한다.

문을 통과하면 중문간이다. 어두컴컴한 중문간을 통해 보이는 밝은 안마당은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다른 세계인것처럼 보인다. 明暗의 대조에 의한 異質性附屬은 대문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문짝이 문간의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두운 내부공간적인 성격이 강하다.

솥을대문의 대문간이 개방과 폐쇄의 애매성과 터널효과의 대조성을 함께 갖고있는 것에 반하여, 중문간은 보다 강한 터널효과만을 갖고있다. 그리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目標로 한 場所에 도달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分析한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出發場所와 目標場所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사이에 移行空間을 둔다. 즉, 집의 바깥에서 안마당에 직접 들어서지 못하며, 移行空間을 거쳐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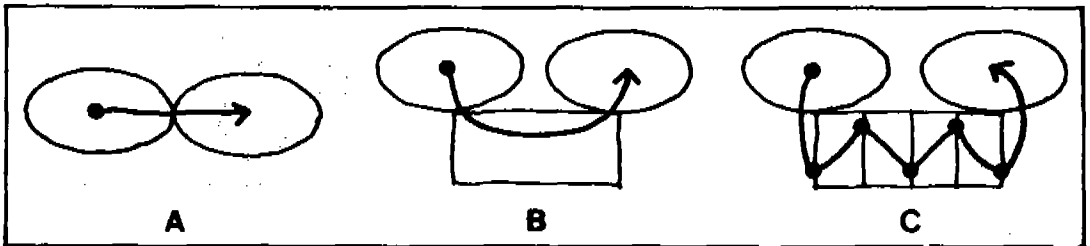
이 이행공간은 하나이상의 副次的移行空間으로 나뉜다. 鄭柄鎬氏住居의 경우는, 좁고 긴 진입공간, 사랑마당, 행랑마당이 이에 속한다. 副次的移行空間을 많이 경험하면⁵⁾, 진입자의 기억 속에는 긴 이행과정이 축적되기 쉽다.

이 경험은, 副次的移行空間의 分節點에 설치되

어있는 건축적장치에 의해 증폭된다. 鄭柄鎬氏住居의 경우, 솥을대문, 디딤돌, 一角門, 壁, 階段, 中門間이 이 장치에 해당된다. 솥을대문이 생성하는 曖昧性, 對照性, 디딤돌이 생성하는 意外性, 一角門이 생성하는 공간변환의 象徵性, 壁이 생성하는 空間性, 階段이 생성하는 상승의 象徵性, 中門間이 생성하는 對照性이 異質性を 증폭시키는 作用을 한다.

따라서, 진입자의 기억 속에는 出發場所로부터 目標場所까지의 사이에 긴 移行過程이 축적되고, 그 결과, 집밖과 안마당의 사이에는 높은 異質性이 附與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 그림4이며, 鄭柄鎬氏住居의 分析을 圖式化한것이 그림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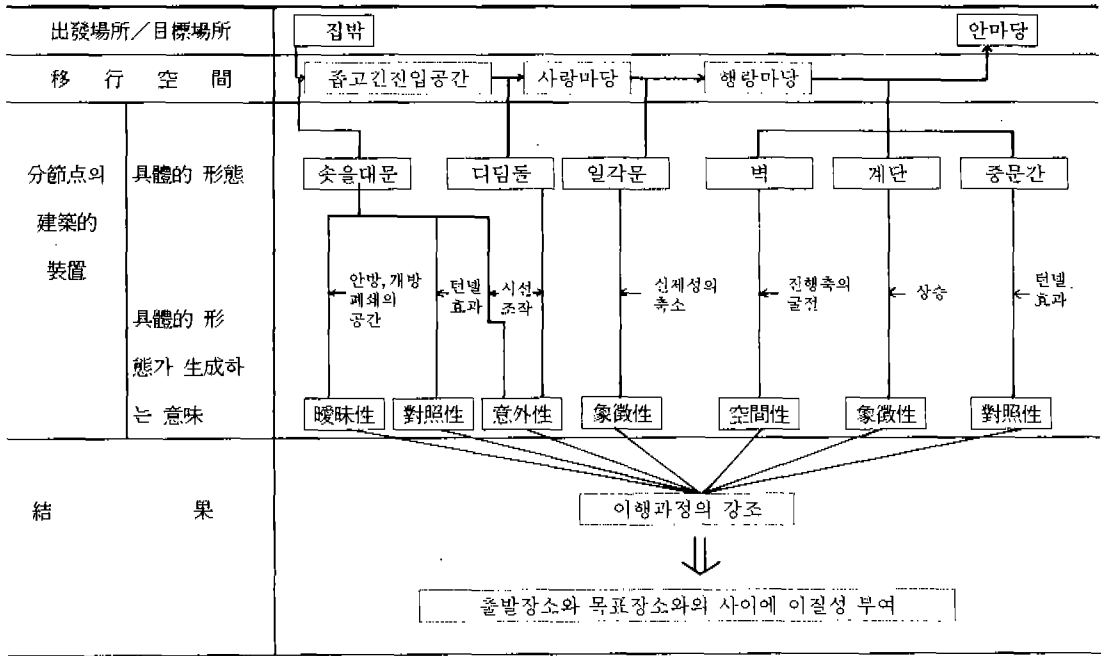
A : 출발장소와 目標장소를 직접 연결한 경우

B : 출발장소와 目標장소의 사이에 이행공간을 설치한 경우

C : 출발장소와 目標장소 사이의 이행공간을 부차적 이행공간으로 나누고, 각 분절점에 건축적 장치를 설치하여 이행과정을 강조한 경우.

(그림4)이행과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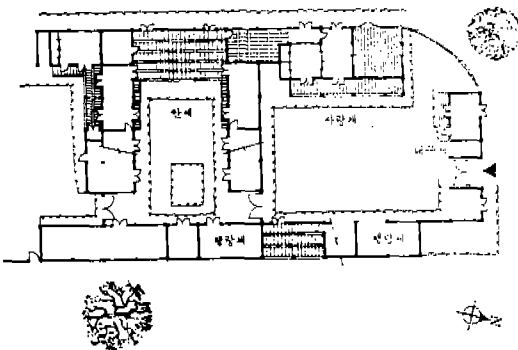
5) 副次的 移行空間의 경험은, 실제로 경유하며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시각적, 심리적으로만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鄭柄鎬氏住居의 경우는, 사랑마당은 실제로는 경유하지 않고, 시각적 심리적으로 강하게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5)咸陽鄭柄鎬氏住居 分析圖

2. 華城 鄭用采氏 住居

경기도 화성에 있다. 19C初에 건축되었다. 안채는 ㄷ字型인데, 행랑채와 함께 안마당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림6)



(그림6)華城 鄭用采氏 住居 平面圖

집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설때, 우선 숫을대문을 지나게 되는데, 숫을대문이 지니고 있는 曖昧性과 對照性에 의해 移行過程이 강조되는 것은 咸陽鄭柄鎬氏住居에서 分析한 바와 같다.

숫을대문을 지나 사랑마당에 들어서면, 시선은 안채의 벽에 부딪힌다. 숫을대문과 中門이 동일축 선상에 배치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선과 동선은 굴절하게 되는데, 이는 사랑마당의 空間性을 강화하고 이행과정을 강조한다. 이것은 전술한 咸陽鄭柄鎬氏住居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림3참조)

사랑마당에서 보이는 안채의 放火壁과 高窓은, 그 너머에 사랑마당보다 더 내부적인 공간을 있음을 상징한다. (사진3) 방화벽과 고창은 외부도로에 면한 外壁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벽과 고창은, 진입자가 지금 있는 사랑마당이 집밖보다는 안이지만, 지금부터 들어갈 곳보다는 바깥임을, 建築的言語를 사용해서 진입자에게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다.



(사진3)華城 鄭用采氏 住居 사랑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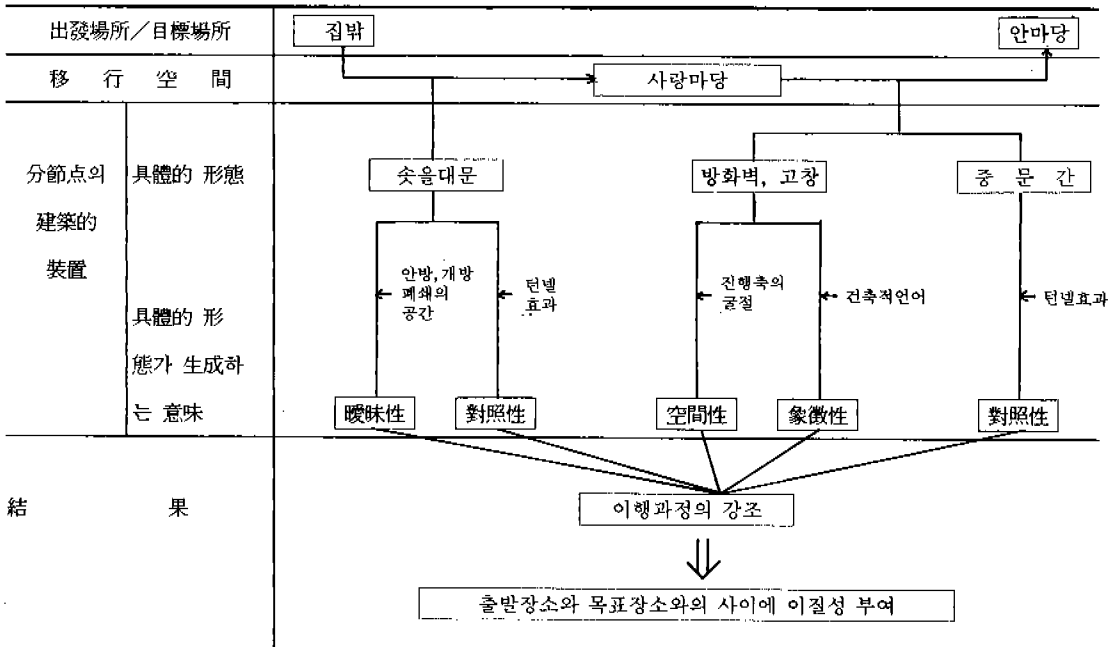
중문을 열면, 어두운 중문간이다. 중문간의 터널효과에 의한 對照性 때문에 안마당이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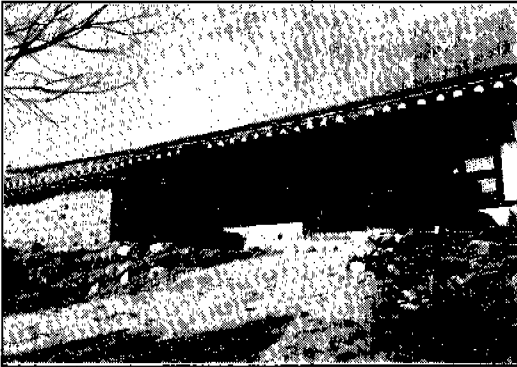
3. 月城 孫東滿氏 住居

경상북도 월성에 있다. 15C에 세워진 口字型的 평면이다. (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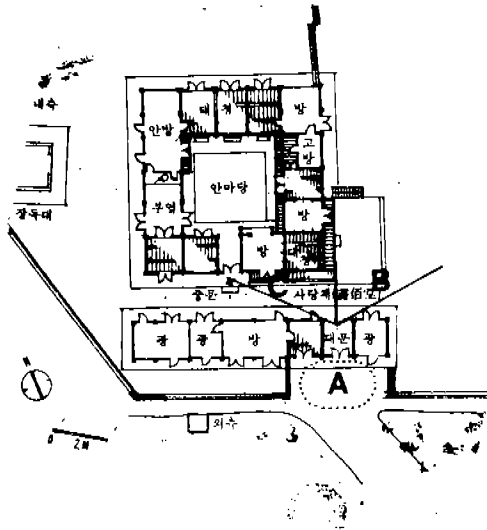
언덕길을 올라 대문 앞에 도착한다. 솥을대문이 아니므로 문 자체가 曖昧性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문의 양측의 담장이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므로, 도로와 주거의 중간적 성격의 공간, 즉 집밖이면서 집안이며, 집안이면서 집밖인 曖昧性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서, 移行中에 있음을 진입자에게 느끼게해 준다. (사진4, 그림8의 A부분)



(그림7)華城 鄭用采氏 住居 分析圖



(사진4)月城 孫東滿氏 住居 入口



(그림8)月城 孫東滿氏 住居 平面圖

대문이 열리면, 어두운 대문간을 통해서 밝은 내부가 보인다. 터널효과에 의한 대조성이 이행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대문간을 지나면 視野는 二分된다. 오른쪽 반은 넓은 마당이다.(그림8의 B) 왼쪽 반은, 행랑채와 몸채 사이에 긴 좁고 긴 공간이다.(그림8의 C) 넓고 개방적인 공간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좁고 긴 폐쇄적인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것은 咸陽의 咸陽鄭柄鎬氏住居에서 사용된 수법, 즉, 실

제의 동선은 넓고 개방적인 사랑마당을 경유하지 않지만, 시각적 심리적으로는 넓은 사랑마당을 체험한 후, 좁은 행랑마당에 들어가는 수법과 비슷하다. 咸陽鄭柄鎬氏住居와 다른 점은, 상반되는 두개의 副次的移行空間의 체험이 順序的이 아니라, 同時的으로 일어나는 점이다.

좁고 긴 진입공간을 향해 몸을 돌리면 시선이 벽에 부딪힌다. 진행축의 굴절에 의해 空間性이 강화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계단을 오르는 행위에 의해 상징적으로 이행과정이 강조되고, 중문간의 터널효과에 의한 對照性에 의해 안마당의 도달이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역시 전술한 바와 같다.

이상에서 분석한 것을 圖式化한 것이 그림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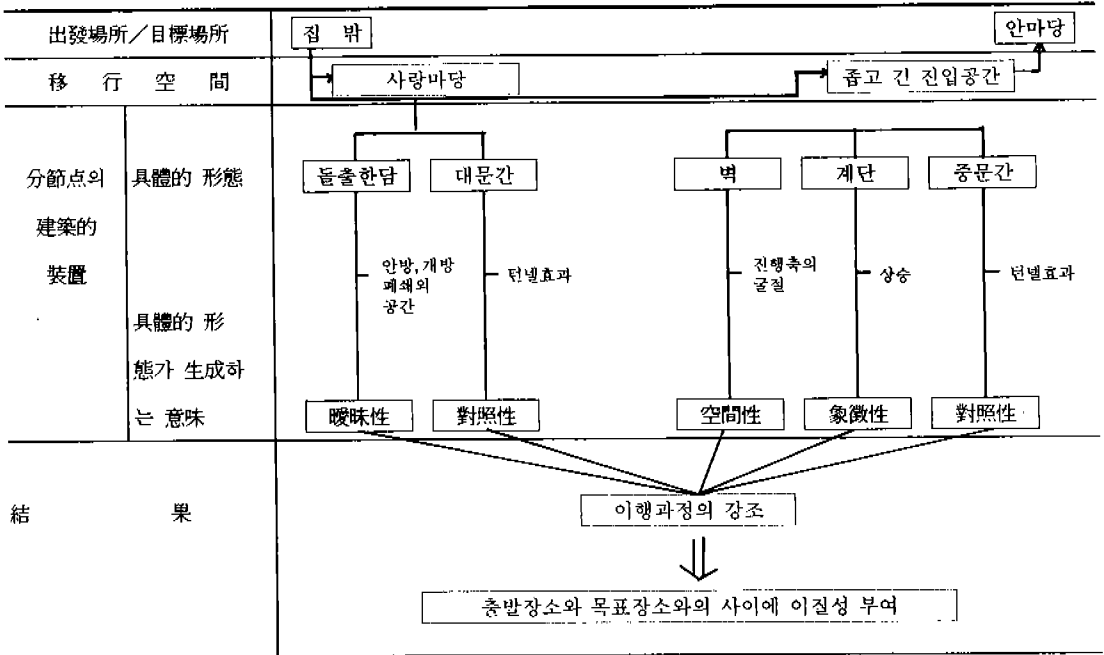
4. 井色 金東洙氏 住居

전라북도 정읍에 있다. 1784년에 세워졌다. 안채는 卍字形인데, 중문간채가 있어서 안마당은 4면이 둘러싸여 있다.(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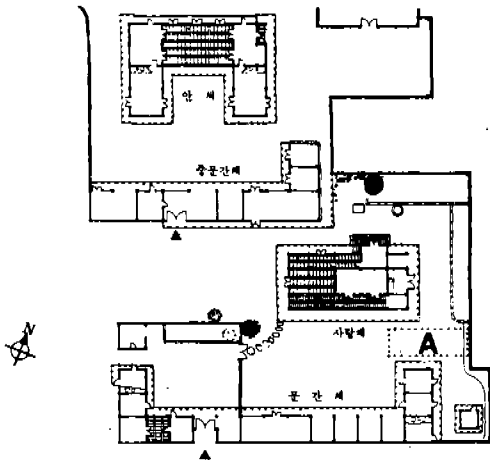
숫을대문의 曖昧性과 對照性에 의해 移行過程이 강조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숫을대문을 지나 행랑마당에 들어가면 시선이 벽에 부딪힌다. 진행축의 굴절에 의해 공간성이 높아져, 移行過程이 강조되도 전술한 바와 같다.

행랑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一角門을 통과해야 하는데, 一角門이 갖고 있는 장소변환의 象徵性 때문에 移行過程이 강조되는 것은 역시 전술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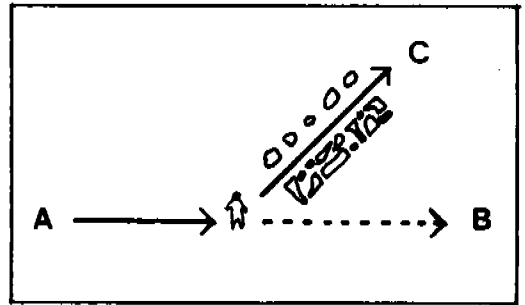
一角門을 지나면, 사랑마당이 보인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좁은 행랑마당에 비해, 사랑마당은 넓고 길다. 북동쪽 끝으로 갈수록 더욱 좁고 길어진다. 이 부분이 一角門을 통과하는 순간 시선이 가는 부분이다.(그림10의 A부분) 진입자에게 가까운 부분이 넓고, 먼 부분이 좁은 형이므로, 먼 쪽으로 향해 뺨어나가려고하는 듯한 힘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진입자의 시선은 사랑마당 안쪽 깊숙히 끌어들여진다. 그러나, 시선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



(그림9) 月城 孫東滿氏 住居 分析圖



(그림10) 井色 金東洙氏 住居 平面圖



- A : 지금까지의 진행방향
- B : 시선의 방향
- C : 지금부터의 진행방향

(그림11) 시선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놓인 디딤돌

으로 놓여진 디딤돌에 의해, 실제의 진행방향은 왼쪽으로 꺾이게 된다. (그림11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제로는 사랑마당을 경유하지 않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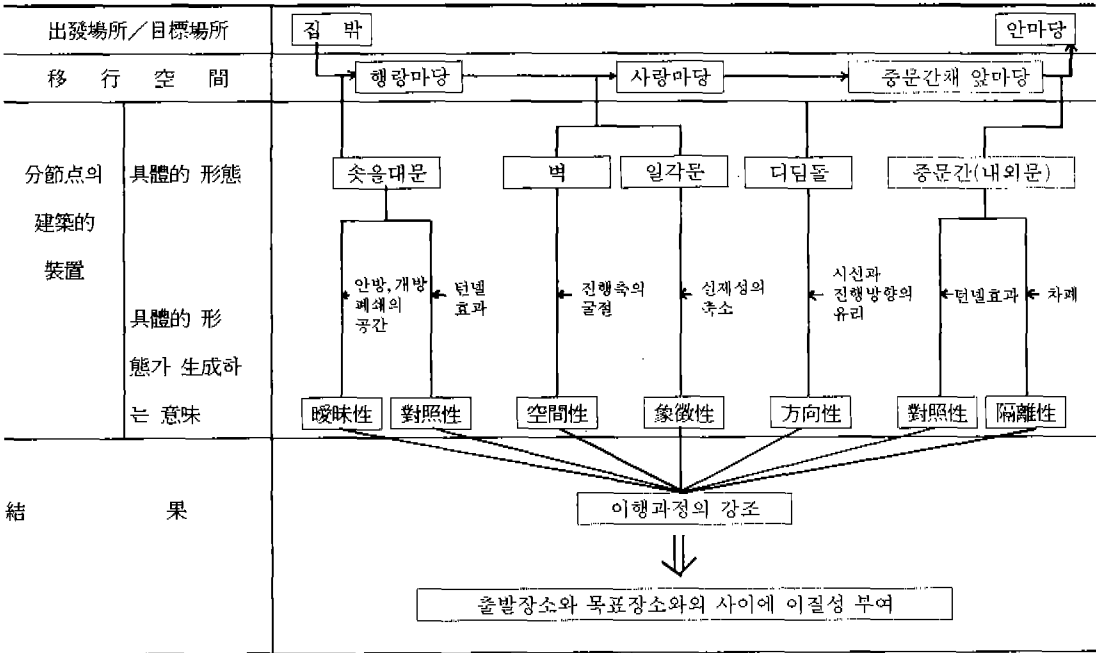
시각적으로는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 서로 다른 공간을 多數 체험하는 것에 의해, 집밖으로부터 실제의 거리이상으로 멀리 떨어진 듯이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거듭 언급한 바와 같다.

중문간채 앞마당을 거쳐, 內外門이 있는 中門間에 도착한다. 內外壁에 의해 시선이 차단되므로, 보통의 中門間보다 隔離性이 높다. 따라서, 진입자는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어두컴컴한 內外門을 나서면 밝은 안마당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것을 圖式化한 것이 그림12이다.



(그림12)井色 金東洙氏 住居 分析圖

Ⅲ. 結 論

朝鮮時代의 住宅을 네채 선정하여 집밖, 구체적 으로는 대문밖을 出發場所로 하고, 안마당을 目標場所로 하여, 그 사이의 移行空間을 分析한 結果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出發場所와 目標場所를 異質의인 場所로써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장소와 목표장소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그 사이에 移行空間을 설치한다.
2. 이 移行空間은 하나 이상의 副次的의 移行空間으로 나뉜다.

咸陽鄭柄鎬氏住居에서는 좁고 긴 進入空間, 사랑마당, 행랑마당, 華城鄭用采氏住居에서는, 사랑마당, 月城孫東滿氏住居에서는, 사랑마당, 좁고 긴 진입공간, 井色金東洙氏住居에서는, 행랑마당, 사랑마당, 중문간채앞마당이 副次的의 移行空間이 된다.

副次的의 移行空間을 多數 경험하면, 진입자의 기억 속에는 긴 移行過程이 축적되기 쉽다.

3. 이 경험은, 副次的의 移行空間의 分節点에 설치되어 있는 建築的裝置에 의해 증폭된다.
咸陽鄭柄鎬氏住居의 경우, 숫을대문, 디딤돌, 一角門, 壁, 階段, 中門間, 華城鄭用采氏住居의

경우, 솟을대문, 방화벽, 고창, 중문간, 月城孫東滿氏住居의 경우, 돌출한 담당, 대문간, 벽, 계단, 중문간, 井色金東洙氏住居의 경우, 솟을대문, 벽, 일각문, 디딤돌, 중문간이, 전술한 건축적장치에 해당된다.

咸陽鄭柄鎬氏住居의 경우, 솟을대문이 생성하는 曖昧性과 對照性, 디딤돌이 생성하는 意外性, 一角門이 생성하는 象徵性, 壁이 생성하는 空間性, 계단이 생성하는 象徵性, 중문간이 생성하는 對照性이 異質性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華城鄭用采氏住居의 경우, 솟을대문이 생성하는 曖昧性과 對照性, 방화벽이 생성하는 空間性, 방화벽과 고창이 생성하는 象徵性, 中門間이 생성하는 對照性, 月城孫東滿氏住居의 경우, 돌출한 담장이 생성하는 曖昧性, 대문간이 생성하는 對照性, 壁이 생성하는 空間性, 계단이 생성하는 象徵性, 중문간이 생성하는 對照性, 井色金東洙氏住居의 경우, 솟을대문이 생성하는 曖昧性과 對照性, 벽이 생성하는 空間性, 一角門이 생성하는 象徵性, 디딤돌이 생성하는 方向性, 중문간(내외문)이 생성하는 隔離性과 對照性이 異質性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분석대상 주거 4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과 일부에만 나타난 것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분석대상 주거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출발장소(대문 밖)와 목표장소(안마당)와의 사이에서 하나이상의 부차적이행공간을 경유하게 되는 것과, 이때 다음 세가지 유형의 이질성 부여 건축적장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진행축의 굴절에 의해 공간성을 강화시키는 건축적 장치, 둘째, 출발장소에서 이행공간으로 진입할 때, 안과 밖, 개방과 폐쇄의 애매성과 터널효과와의 대조성을 주는 건축적 장치를 통과하게 되는 것 셋째, 이행공간에서 목표장소로 진입할 때 터널효과에 의한 대조성을 주는 건축적 장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본으로 하여, 주거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차적 이행공간의 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각 부차적 이행공간의 분절점에 이질성을 증폭시켜주는 건축적 장치가 추가배치된다.

그리하여, 진입자의 기억 속에는, 출발장소로부터 목표장소까지의 사이에, 실제보다 긴 이행과정이 축적되고, 그 결과 대문 밖과 안마당의 사이에는 높은 異質性이 附與되는 것이다.

이상의 分析에 의해서, 出發場所와 目標場所의 사이에 異質性이 附與되는 메카니즘이 명백해지고, 異質性附與建築的裝置는 구체적인 ‘形態’의 次元과, 形態가 생성하는 ‘意味’의 次元으로 분해되었다.

본 연구는, 異質性附與建築的裝置의 研究에 있

(표1)분석대상주거에서 나타난 부차적 이행공간과 이질성부여 건축적 장치

	분석대상주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		분석대상주거의 일부에서 발견된 것	
부차적 이행공간	사랑마당		행랑마당 좁고 긴 진입공간 중문간채 앞마당	
이행공간의 분절점에 설치된 건축적 장치	구체적형태	구체적형태가 생성하는 의미	구체적형태	구체적형태가 생성하는 의미
	솟을대문* (돌출한담+대문간)	① 안·밖, 개방·폐쇄의 중간적 애매성 ② 터널효과에 의한 대조성	계 단	상승에 의한 공간변환의 상징성 일 각 문
	중 문 간	터널효과에 의한 대조성	디 딤 돌	시선및진행방향의 조작에 의한 의외성, 방향성
	벽	진행축의 굴절에 의한 공간성	방화벽·고창	건축적 언어의 상징성

* 솟을대문이 아닌 경우에도 애매성을 줄 수 있는 보완장치(돌출한 담)가 있었으므로, 애매성과 대조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같은 칸에 ()로써 표시하였다.

어서, 지나간 역사적 형태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의 적용을 전제로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2개의次元으로 분석가능했던 것은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광언,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 2) 신영훈, 「韓國의 살림집」, 열화당, 1983.
- 3)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보진제, 1978.
- 4) 장보웅, 「韓國의 民家研究」, 보진제, 1981.
- 5) 주남철,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1985.
- 6) 김광현, 「通度寺의 重層的展開에 관한 形態分析」, 「建築」, 제29권, 제122호, 1985.
- 7) 이강훈, 「韓國建築에 있어서 陰陽空間의 秩序」,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
- 8) 정무웅, 「韓國傳統建築 外部空間의 階層的秩序에 관한 研究」, 한양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4.
- 9) 조창한, 「韓國寺刹과 회암神殿의 建築空間構成 比較研究」,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5.
- 10) 최 일, 「朝鮮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
- 11) 川添登, 「象徴としての建築」, 筑摩書房, 1982.
- 12) 香山壽夫外8人, 「新建築學大系 6. 建築造形論」, 彰國社, 1985.
- 13) 野村孝文, 「朝鮮의 民家」, 學藝出版社, 1981.
- 14) 金光玄, 「建築形態의 重層的展開についての研究」, 東京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3.
- 15) 香山壽夫, 「建築における形態の解釋と構成について」, 「新建築」, 1975, 5.
- 16) _____, 「建築形態の構造分析」, 「東京大工學部紀要」, 1977. 12.
- 17) _____, 「建築の形態構造に関する研究」, 東京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7.
- 18) Arnheim, Rudolph,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Univ. of California Press, 1954.
- 19) _____,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 20) Focillon, Henri, Vie des Form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55, 杉本秀太郎譯 「形の生命」, 岩波書店, 1968.
- 21) Frankl, Pau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 The Four Phases of Architectural Style, 1420~1900 M.I.T. Press, 1968, 香山壽夫譯編 「建築造形原理の展開」, 鹿島出版會, 1979.
- 22) Norberg - 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raeger, N.Y. 1971, 金光玄譯, 「實存, 空間, 建築」, 産業圖書出版公社, 1977.
- 23) Rowe, Colin & Robert Slutzky, 「Transparency」 Perspecta No. 8, 1963. 中村敏男譯, 「透明性一虛と實」, a+u, No. 50, 1975. 2.
- 24) _____, 「Transparency II」, Perspecta No. 13 ~14, 1974.
- 25) Venturi, Robert,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The Museum of Modern Art N.Y. 1966.